

# Satir의 가족신념, 가치체제 및 치료적 접근이론의 기독교적 분석과 비교

변 영 인 교수  
(Ph.D., 동서대학교)

## 국문초록

기독교 상담가 Gary R. Collins는 기독교적 관점의 학문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된 진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날의 수많은 학문들은 그 계시된 진리에서 도출해낸 발견된 진리라고 표현했다. 즉 성경의 기초가 없이는 어떠한 학문, 어떠한 진리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견해를 갖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어떤 학문의 가치든 성경을 비추어 본래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관계에 지대한 영향과 치료적 대안을 제시한 Satir의 이론은 성경적 가치 분석을 통해 일부분 일치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적 안목으로 보았을 때 유익하고 일치되는 부분과 그 유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Satir는 인간의 능력을 지나치게 극대화한 점이 있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고 또 그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인간능력의 한계를 지나치게 극대화했음을 인정하며 말씀에 기초해서 인간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결여 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없음을 극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제 현대사회와 가족치료의 필요성, Satir 이론의 가족신념 가치체제와 치료적 접근이론을 비교하면서 제시된 진리인 말씀으로 분석 비교해 보고자 한다.

중심단어 : 기독교적 분석, 가족신념, 가치체제, 치료적 이론, 의사소통 유형

## I. 여는 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또한 다양한 각도로 접근한 학문의 세계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기독교 학문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야만 할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의 학문을 설명한 Gary R. Collins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된 진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날의 수많은 학문들은 그 제시된 진리에서 도출해낸 발견된 진리라고 표현했다.<sup>1)</sup> 다시 말해서 성경의 기초가 없이는 어떠한 학문, 어떠한 진리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견해를 갖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서 Satir의 이론을 성경에 비추어 가족치료 이론도 본래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관계에 지대한 영향과 치료적 대안을 제시한 Satir의 이론은 성경적 가치 분석을 통해 일부분 일치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적 안목으로 유익하고 일치되는 부분과 그 유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Satir는 인간의 능력을 지나치게 극대화한 점이 있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고 또 그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인간능력의 한계를 지나치게 극대화했음을 인정하며 말씀에 기초해서 인간한계를 인정하는 겸손

함이 결여 되어 있음을 지적치 않을 수 없음을 극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제 아래와 같이 현대사회와 가족치료의 필요성, Satir 이론의 가족신념 가치체제 치료적 접근이론을 비교하면서 제시된 진리인 말씀으로 분석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오늘날의 사회구조로 본 현대가정 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현대사회와 가족치료의 필요성

현대사회가 오늘날과 같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가정의 변화가 매우 급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부부간에 있어서도 역할의 분담에도 부분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거의 남편들은 가정 경제를 위해 밖으로만 나가게 되었고, 아내는 가정생활에만 전담하게 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부간의 역할이 오늘날은 급속하게 변화가 나타나면서 다양한 변화를 맞게 된다. 러셀은 오늘날의 각 가정에서는 자녀수의 감소, 여성 해방 운동의 확산, 후기 산업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별 분업화에 따른 결과 등으로 부부간의 역할에 평등주의가 나타난다고 한다. 곧 이러한 가정의 변화와 부부간의 평등주의와 60년대 이후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가족관계에 여러 가지 위기가 생겨났다고 본다. 그것은 성의 해방, 여성 해방 남녀평등이라는 이론 속에서 한국의 가정은 남성중심의 오랜 전통의 가부장적인 특성은 사라지고 새로운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게 되었다. 라인벨은 “훌륭한 결혼이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만족을 채워줌으로써, 인간으로서 하나님 뜻하시는 바의 가능성들을 성취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가정 문화 세태 속에 예외일 수 없는 우리나라의 가족 관계 양상이

우리 사회가 1960년대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이르면서 급변하는 산업사회와 전자 문화사회 가운데 처하게 되면서, 그 질과 형태면에서 크게 변화 받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학적 연구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가정문화의 변화는 전통적인 대가족 가정 문화의 붕괴 현상이다. 대가족 제도 가정문화 붕괴는 이미 7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에 아파트 주거문화가 일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대가족 제도 문화의 붕괴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사회 속에서 핵가족 문화(Nuclear Family)를 태동시킴으로써 9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기까지 핵가족 제도의 분열현상(Nuclear Family Fermentation)으로 인한 각종 가족관계의 갈등 현상들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를 인한 여권 확대사상과 개인주의 사상이 혼합되어 우리나라 핵가족 제도에 도입되면서,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형제 친척간의 마찰 등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 형태의 변화는 전통적인 가부장제도의 약화를 가져오고 지역적, 사회적 이동이 빈번하게 되면서 개인주의, 부부중심의 핵가족을 지향하게 됨에 따라서 친자 관계보다 부부관계가 우선적인 것이 되었고, 생활유형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sup>2)</sup>

한국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은 도시화를 촉진시켰고 이로 말미암아 전통사회에서의 규범이 약화되어지면서 거구적인 평등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의 가치관이 도래하게 되었다.<sup>3)</sup> 이로 인해 엄청나게 역기능 가족이 확산되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과도기적 시점에 있어서의 가족 간의 문제 갈등과 긴장상황 속에서 방황하는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문제, 가족 기능의 상실 등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치료적 배려와 지도를 위해 기독교적 관점의 가족문제 해결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가족 치료이론이 제시되었고, 특히 Satir의 가족치료이론 가치체계와 신념에 따른 치료적 개입과정과 치료방법은 매우 의미 있고 유용한 이론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론을 다시 기독교적 관점에서 분석 비교하는 일은 기독교 학문을 정립하고 말씀으로 가족문제를 해결함에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 이해와 치료를 돕는데 더욱 가치로운 일이라 보겠다.

### Ⅲ. Satir의 의사소통 가족치료이론의 이론적 배경, 가치체계와 신념

#### 1. Satir의 가족의사소통이론의 이해

##### 1) Satir 가족의사소통 이론의 배경

경험적 가족치료자로도 불리어지는 Satir의 가족의사소통 이론은 개인심리 치료처럼 즉각적이고, 지금-여기에서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인본주의 심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sup>4)</sup> 1960년대에 들어서서 정신분석이 퇴조하기 시작하고 유럽의 실존주의 사조가 들어오면서 게슈탈트(Gestalt) 치료가 차츰 인정받기 시작하여 소위 3세력 운동으로 불리는 인본주의 심리학이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정신분석의 결정론 대신에 자유와 경험의 즉시성 안에서 개별성의 본질을 발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5)</sup>

Satir의 이론은 현상학의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현상학이란 어떤 사실 그 자체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관점을 말한다. 현상학에서 시간이란 ‘이어지는 시점들의 합’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의식에 나타나고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의식의 흐름’을 간주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여기

만이 실존적인 시간이라 할 수 있다.<sup>6)</sup> 결국 Satir의 이론적 배경은 자아심리학 행동이론, 학습이론, 체계이론, 의사소통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 2. Satir의 가치체계와 치료적 신념

### 1) 가치체계

Satir가 발전시킨 가족치료 접근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녀가 말하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신념과 가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인간에 대한 개념<sup>7)</sup>으로 모든 인간은 잠재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다. 비록 개인에 따라 잠재능력은 다양하지만 좀 더 많은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에 대한 개념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며, 자율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가치감과 자원을 찾아야 한다.
  - ② 인간은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신념, 확신, 지식, 사랑, 관심, 인정, 나눔 등 내면의 지원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 ③ 개개인은 독특하여 자기 내부의 힘과 확인에 근거하여 자신을 정의한다.
  - ④ 인간은 영성과 신성함을 지니고 태어나며 우주적 생명력을 드러내 보인다.
  - ⑤ 인간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상호보완하거나 존중하면서 협동과 관찰, 나눔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린다.
  - ⑥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과 타인의 차이점을 받아들인다.
- 둘째, 관계에 대한 개념<sup>8)</sup>으로 관계는 진정한 사랑과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 가치관에 근거한다. “사람과 사람은 동등한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동등성을 추구하며, 이를 치료 상황에서 내담자와의 관계에 실제로 적용한다. 관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인간의 가치는 동등하다.
- ②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관계를 맺는다.
- ③ 인간의 정체는 역할이나 지위와 무관하다.
- ④ 인간, 관계, 관심, 유사점과 차이점을 평등하게 수용하며, 사랑, 주인 의식, 티인에 대한 존중, 표현의 자유, 인정받음을 느낀다.

셋째, 사건에 대한 개념<sup>9)</sup>으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는데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사건을 설명하기가 때론 복잡하다. 예를 들면 사건 A는 B, C, D, E의 결과가 될 수 있다. 사건들은 역사, 지역, 시점, 문화, 등의 많은 변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사건들은 외적, 또는 내적인 세계의 변인들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행동은 내적·외적 세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표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사건이란 결과의 원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변인들 간의 관계라고 규정하며, 결과에 대하여 하나의 원인을 발견하기 보다는 변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사건은 여러 변인들과 사건들의 결과이다.
- ② 올바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준을 적용하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③ 인간은 상황과 이에 관계된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분명히 드러난 사건의 이면을 본다.
- ④ 순환적 사고와 체계적 접근(활동-반응-상호작용)은 타당성, 발견, 정보, 질서, 관계성을 생성시킨다.

넷째, 변화에 대한 개념<sup>10)</sup>으로 변화는 우주 차원에서처럼 하나의 세포에서

발생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삶의 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변화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기에 현재에 상태에 머무른다면 선택은 불가능하다. 물론 새로운 영역은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두려움이 앞서기는 하나, 필수적이며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변화에 대한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안전감은 변화와 성장의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으면서 생긴다.
- ② 변화를 필연적이며 지속적인 것으로 보며, 환영하고 기대한다.
- ③ 불편함과 고통을 변화의 신호로 본다.
- ④ 미지의 것을 알기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기회를 잡는다.
- ⑤ 새로운 선택과 자원을 발견하는 것을 즐긴다.
- ⑥ 변화에 직면할 때 흥분, 연결감, 사랑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인간 속성에 관해서 세 가지 기본적인 신념<sup>1)</sup>이 있음을 말한다. 첫째, 모든 인간은 생존하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타인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가 병들었다거나 나쁜 행동이라 진단하는 내담자의 행동은 고통의 호소이지 결코 나쁜 행동이 아니다. 셋째, 인간에게 있어서 생각과 감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을 근거로 Satir 모델의 가치체계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존재가치, 성장과 변화를 위한 희망과 가능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욕구와 잠재력에 무한한 가능성과 동기를 제공한다.

Satir는 전술한 개념을 기초로 의사소통가족치료의 모델의 가치체계를 구축하였다. 어느 가족치료자들보다 더 인간의 잠재력에 관심을 두었으며,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에 기본적인 가치를 두었다. 이를 위해 가정이야말로 인간을 현실적인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실험실로 보았다. 그녀는 또한 경험을 통하여 잠재력이 개발되고 발전하며, 강화되어질 때 성장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신념을 근거로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안정화 시키는데 집중하였다.

## 2) Satir의 치료적 신념

Satir 모델이 구축하고 있는 일반적인 신념<sup>12)</sup>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삶은 변화가 가능하다. 비록 인간이 외부환경의 변화가 제한되어도 그 내적 변화는 가능하다.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사건들로부터 우리가 받은 영향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희망은 변화의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과정은 변화의 통로이며, 내용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관계성을 형성시켜 준다.

둘째, 인간은 모두 동일한 생명력의 현현체로 우리는 모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내적 자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감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의 내적 보물, 즉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셋째, 우리는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좋고 바람직한 것보다는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나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적절하게 선택하여 대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치료의 주요 목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넷째, 우리 모두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감정은 우리에게 속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책임져야 한다. 사람은 유사점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차이점을 바탕으로 성장한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평등한 가치위에 세워진다.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처하는 방식이 문제이다. 대처방식은 자기가치감의 수준의 표현이며, 자존감이 높을수록 대처방식은 건전하다.

그러므로 높은 자존감과 일치성이 주요목표이다.

다섯째, 과거에 대한 수용과 감사는 현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킨다. 전인적 완성을 향한 목표중의 하나는 부모를 수용하는 것이다. 부모를 하나의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부모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의 수준으로 놓고 만나야 한다. 부모들이 비록 역기능적인 삶의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자신들이 자랄 때에 배운 익숙한 삶의 양식을 반복하며, 부모들은 그 당시에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인간은 서로 다른 상황과 문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우주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치료는 병리보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 IV. 기독교 상담학적 분석 이론

### 1. 가치체계와 치료적 신념에 대한 분석

Satir가 제시한 가치체계 중 인간과 관계에 대한 개념을 평가하고 치료적 신념, 즉 변화와 성장에 대한 내적 자원, 자율적 선택권자, 과거에 대한 수용과 감사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평가해보기로 한다.

#### 1) 가치체계에 대한 분석

Satir는 인간, 관계, 사건, 변화의 차원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그 개념을 기초로 하여 가치체계를 구축하였다. 기독교 상담은 시대마다의 변화와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성경에 기초한 인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상담의 가장 중요한 기본전제가 되는 ‘인간관’에 대해

먼저 평가해보고, ‘관계’에 대해 평가해보고자 한다.

먼저, Satir의 ‘인간관’에 대해 평가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Satir는 매슬로우(Maslow), 로저스(Rogers) 등의 인본주의 심리학과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로서, 악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잠재력과 관련하여 인간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신념, 확신, 지식, 사랑, 관심, 인정, 나눔 등의 인간 내적 자원 및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Satir의 근본사상으로 인간을 선한 존재로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다는 사상과 일치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불완전성과 부패성을 부인하는 사상<sup>13)</sup>으로 볼 수 있겠다. 근본적인 인간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즉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이유로만 인간의 긍정적 요소를 소유했기 때문이란 접근을 하지 못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아담의 범죄이후 모두 죄인이며(롬 3:23, 5:19), 죄성이 가득한 존재로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며(롬 1:23-32), 그 결과는 사망과(롬 6:23), 비참함이다. 죄악 된 인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게 하며, 가치관을 변질시켰고, 사고와 행동이 원죄 및 자범죄의 영향을 받으며 인간본위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sup>14)</sup> 실제로 가족이나 개인의 많은 문제들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Satir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에 대하여 간과함으로 인해 인간을 오직 선한 존재로 규정하며 스스로 선해질 수 있는 존재로만 해석한다. 이는 기독교적인 인간관과 상반되는 견해로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치료의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인간관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제공해주지도 않고는 도저히, 그 어떤 길로도

제공해 줄 수도 없는 것이다.<sup>15)</sup>

둘째, 가족의사소통이론은 인간을 가족체계를 통하여 상호작용하는 관점에서 인간문제를 바라보고 치료적인 전략들을 구상하게 된다. 즉 개인의 문제는 환경, 특히 가정에서의 부모와 가족구성원의 영향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폭넓은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을 배경으로 하는 인간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실제로 인간의 모든 습관과 행동은 가족 내에서 배우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오직 가족간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만 찾는 것은 인간문제의 한계를 지닌다.<sup>16)</sup> 즉 인간본연의 모든 문제의 내면에는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비롯된다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함으로 가족관계 외에 한 개인의 책임감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논하기를 꺼려하고 그 원인을 다른 대상에게로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데<sup>17)</sup> 가족의사소통이론도 가족의 상호작용이라는 환경으로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치체계 중 ‘관계’에 대한 개념으로 인간의 동등성에 대해 평가해보자. 전술한 바와 같이 Satir가 이해하는 관계는 진정한 사랑과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 가치관에 근거하여 사람과 사람은 동등한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정체는 역할이나 지위와 무관하다고 한다. 이러한 동등성의 가치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하면 한편 간과하고 지나가는 면이 있다.

성경은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고전 12:13)의 가르침에서처럼 이러한 동등성의 가치를 긍정한다. 반면, 성경은 정상적 권위를 토대로 하는 계층성의 존중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엡 6:5-6)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존중되어야 함을 설명(롬 13:1-2)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롬 13:2) 묘사하고 있다.<sup>18)</sup>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 중의 하나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부모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다. 복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권위, 법, 책임 및 하나님에 대한 복종 등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바울은 복종의 범위를 “주안에서”라고 규정하여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가치관의 원리이며, 표준적인 가정윤리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참된 징계는 권위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가르치는 것이다(히 12:5-11).<sup>19)</sup>

결국 우리는 Satir가 주장한 동등한 존재가치와 평등한 관계로서의 인간관계에 대해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만인의 동등성은 인정된 집에서는 수궁이 가지만, 근본 하나님의 권위와 관련하여 간과하는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2) 치료적 신념에 대한 분석

Satir 모델의 치료적 신념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이것은 인간 변화의 보편성에 대한 신념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누구나 성장에 대한 내적 자원, 즉 생명력이 있다.” 이것 또한 인간의 보편적 생명력(life-force)에 대한 신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셋째, 인간은 누구나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선택권자라는 것이다.

넷째, 누구나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리이다. 이것은 인간의 높은 자존감이 좋은 감정을 형성하게 된다는 신념이다.

다섯째, 인간은 과거에 대한 수용과 감사, 그리고 부모에 대한 수용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이다.

이러한 Satir의 치료적 신념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몇 가지로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인간의 보편적인 변화와 보편적인 생명력(life-force)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아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음을 본다.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성경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다.<sup>20)</sup>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급격한 변화, 즉 중생과 성화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 변화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변화를 약속하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변화는 가능하다. 인간의 연령이나 사회적 신분이 변화의 방해요소가 될 수 없다. 변화의 원천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 이는 기독교 상담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관건이다.<sup>21)</sup>

결국 인간의 변화란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와 생명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비신앙적 보편성에 대해서 성경은 문제를 제기한다. 즉, 믿음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본질상 죄와 사망의 법아래 있는 상태(롬 8:2)”, 심판을 기다리는 절대 절망의 상태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엡 2:3)”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힘이 없는 연약한 상태(롬 5:6)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거듭남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도, 변화의 생명력에 대해서도 온전한 신념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변화와 생명력에 대한 보편적인 신념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편적인 신념으로 대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새로운 생명력과 변화가 출발되는 것이다(롬 8:1-2, 고후 5:17).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징체성 이외에 다른 것은 무가치하다고 주장하였고(빌

3:7-9),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참다운 변화의 능력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고전 1:30).<sup>22)</sup>

둘째, Satir의 인간을 향한 신념 중 모든 사람이 자율적 선택권자라는 신념에 대해서도 역시 성경은 부분적 동의만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죄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창 4:7을 통해 우리가 이를 의지적으로 다스릴 것을 명하신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택권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동시에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유로운 선택권자로서 필요한 판단력이 상실되었음을 롬 1:21-23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죄의 종”(롬 6:17)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표면적으로 아무리 자유인의 삶을 산다고 하여도, 내면적으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잘못된 영적인 의지(엡 2:2)에 순종하게 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자율적 선택권의 상실이 그리스도를 떠난 삶의 특징임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다름 아닌 자유인이 되는 삶이요(요 8:31-32), 해방의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롬 8:1-2). 즉, 성경적으로 볼 때 자율적 선택권 역시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주어진 요소이지만, 현재 죄로 인해 왜곡된 선택권의 완전한 회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 안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다.<sup>23)</sup>

마지막으로, 과거에 대한 수용과 감사는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는

기독교적인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빚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또한 과거나 현재의 고난에 대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신을 이루시는”(롬 8:28)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것을 권하고 있으며, 감사의 마음으로 소망중에 기도할 것을 빌 4:5-6에서 권고하고 있다. 특히 성경은 한 개인이 과거를 수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로써 성경은 과거의 수용에 신앙적 차원으로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딤후전 1:13), 자신이 이를 수용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은 근거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딤후전 1:13),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딤후전 1:12-13), 이것이 감사의 근거(딤후전 1:12)가 되고 있음을 말한다.<sup>24)</sup>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로 감사의 존재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은혜를 통하여 구원 받았으므로 자랑할 것이 없으며 감사할 것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엡 2:8-9). 이러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존재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동기부여가 됨을 설명한다(엡 2:10, 딤후 2:14). 이 은혜는 또한 아직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로 제안되고 있다(딤후 3:3-7). 그러므로 Satir의 과거에 대한 수용과 감사는 성경적으로 볼 때 매우 성경적인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겠다. 이는 Satir의 이론이기도 하지만 역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록 본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진바 된 존재임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는 바로 이러한 감사를 갖게 하는 기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본다.

## 2. 가족체계에 대한 분석

Satir에게 있어 가족이란 상호작용적 욕구가 충족되는 곳으로 성장과 생존을 위한 욕구를 교환하는 곳 곧 개인에게 있어서 그 생각이 시작되고 영위되는 모체로서 개인은 가족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격이 형성, 발달하며 모든 잠재력이 실현되는 터전이다. 또한 가족은 개인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의 체계로 이해한다.

이렇게 가족을 체계적으로 보고 치료하는 가족의사소통이론은 위기에 처해있는 현대의 가정공동체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기독교 상담에도 통찰을 준다. 그러나 이 이론이 지니는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이 이론의 가족체계에 대한 공헌점과 한계점을 몇 가지고 지적하여 살핍으로 기독교적 세계관과 그 안목을 높이고자 한다.

첫째, 가족치료이론의 움직임들이 기독교적 기본사상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지는 것은 가족에 대한 강조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족으로서, 그리고 한 몸으로 다루었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사랑의 인약으로 연결된 형제자매의 관계로 묘사한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규범적인 구조와 필수적인 기능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는 것처럼 가족치료에 있어서도 한 인격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차적인 맥락으로 가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가족치료의 가장 큰 공헌점이다.<sup>25)</sup>

둘째, 가족의사소통이론은 가족 안에서 한 개인의 증상의 원인을 가족 체계안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치료의 관점에서도 그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그 가족의 체계를 정립하고 문제를 한 단면만이 아닌 가족구조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것인데, 이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sup>26)</sup>

가정은 인간발달과 사회성 및 정서성을 포함한 성격형성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심리적 과정을 포함한 인적환경이며, 이러한 인적 환경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갖게 되는 양육태도에 의해 결정되어진다.<sup>27)</sup> 그러므로 성장과정에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 발달과 정서적 특성, 사회적 성장 및 심리적 만족과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sup>28)</sup> 결국 인간의 문제를 가족구성원이라는 상호작용과 영향력 안에서 찾으며 가족구조적 관점에서 이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셋째, Satir는 가정을 자아존중감이 획득되는 장소로 보았다. 자아존중감은 한 인생의 초기에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대부분 형성되는 것으로써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로 간주한다. 이러한 견해는 사람이 성장하고 자아존중감이 획득되는 근본적인 배경으로써 가정의 중요성과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교육적인 면에서 많은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sup>29)</sup>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판의 대상이 된다. 먼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틀이 온전한 자아존중감을 키워줄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음에는 매우 역부족이다. 다음으로 감정차원의 자아존중감과 인간의 본래적 신, 무한한 잠재력의 실현이라는 로저스(Rogers)와 매슬로우(Maslow)의 인본주의 심리학과 현상적인 자아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자아존중’이라는 Satir의 개념은 기독교적인 자아존중감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데이비드 칼슨(David E. Carlson)은 기독교적인 자아존중감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피조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정의한

다.<sup>30)</sup> 기독교적인 자아존중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존재의식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탕으로 믿음을 통해 맺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근거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이 우선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확인과 용서를 받은 후에 자아존중이 회복되어 또한 중요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은 제이 아담스(Jay E. Adams)가 지적<sup>31)</sup>하였듯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기발견은 죄성으로 가득 찬 자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독특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가치 있는 존재이며, 구속의 피 값으로 건짐 받은 구속의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에 존귀한 것이다. 이처럼 성경적인 자아존중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Satir의 인본주의 심리학의 자아존중감은 기독교적인 자아존중감과 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성경적 근거에서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한 인간을 개인이라는 개념보다는 가족이라는 체계 내에서 다루려 하기 때문에 개인의 중요성을 흐리게 하거나 개인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문제가 개인에게 있다기보다는 가족 전체와 연관이 있다는 관점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개인의 인격적 책임은 약화될 것이고 따라서 자신은 가족문제의 희생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sup>32)</sup> 이에 대해 존스와 버트만은 다음과 같이 비평한다.<sup>33)</sup>

그러나 우리는 가족과 개인을 아울러 연구하는 것이 개인보다는 가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무시하지 않으려함을 표명하는 것이다. 가족치료자의 일부분에 있어서 가족치료법의 형태들은 인간에 대한 ‘집산주의 지(collectivist)’ 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함축적으로 또는 명백하게 포용

하는 것 같다. 인간에 대한 집산주의자적 관점은 인간을 대체적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단순히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생산물로만 보는 것이다. 보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들의 핵심적 자기정체성이란 그것이 어떤 계급, 가족 집단 또는 사회적 집단이든간에, 한 시스템, 사람들의 한 집합의 한 일부로서의 자기정체성으로 가장 잘 여겨지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적인 인성이란 하찮은 또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오류가 따를 수 있다고 본다. 우리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대인적인 시스템들의 한 기능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그 시스템의 특성과 기능이지 그 개체 한 사람이 아닌 것이다라고 여기는 위험한 관점이다.

즉, 그들이 지적하는 것은 가족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한 개개의 개인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앙인으로서 생태적인 환경, 교회공동체, 가족과의 관계의 변화(구조적 구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사역, 개인적인 선택과 책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의 중요성을 약화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관점의 인간은 사회와 환경, 가족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개인적인 결단과 책임에 대해서 요구하시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가족체계 이론의 입장을 견지하다보면 인간이란 단순히 외부적인 사회 체계적 환경의 산물이라는 결론론에 도달하게 된다. 비록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며, 가족이라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 구성원인 한 개인은 개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선택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존재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가족체계적 관점은 개인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체계적 관점에 대한 강조는 한 개체적 개인을 소홀하게 다룰 위험성이 있다.<sup>34)</sup>

마지막으로 Satir는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다양한 형태

를 이야기 하며 구성원간의 일치형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은 기능적 가족이며 그렇지 않은 가족에 대하여 역기능가족이라고 분류한다. 가족구성원간의 상호 작용과 사랑을 강조한 가족체계는 성경적으로 타당성을 갖기는 하지만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중요한 차원을 간과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또 다른 한 상호작용의 한 형태를 중시하고 있는데 가족구성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즉 성경적 관점에서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을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신약적인 측면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게 된다고 하셨다(요 13:34-35). 이런 점에서 성경적 원칙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분류하고자 할 때 가족구성원간의 사랑에 의한 상호작용을 가족의 기능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기초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사람에게 대한 사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요일 4:20-21).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큰 계명을 묻는 질문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마 22:36-40, 신 6:5, 레 19:18)이 성경의 총체적 요약이라고 설명하셨다. 이렇게 볼 때 가족구성원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성경적 관점에서 가족의 기능적 측면을 규정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두 기준의 한 측면이다. 이런 점에서 Satir의 가족체계는 가족구성원간의 사랑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한 편협한 체계라고 볼 수 있다.

### 3. 의사소통유형에 대한 분석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생존유형(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주의산만형)이라고 부르며, 이 생존유형은 일반적으로 낮은 자존감과 불균형적인

가족관계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Satir는 의사소통의 유형을 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비난형, 회유형, 초이성형, 산만형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이고 일치형은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보고 있다. 즉 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메시지를 경청하며, 명확하게 질문하고,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반면에 역기능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 중에 회유형은 타인과의 관계가 깨질 것을 걱정하고 자기 약점이 노출되는 것을 염려하여 인어와 비언어적인 불일치를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충실한 상태로 대화하기 어렵다고 한다. 곧, 내적·심리적으로는 자아존중감의 손상과 관련이 있고, 환경적으로는 가족규칙, 체계, 사회와의 관련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기독교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보면,

첫째,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상대방의 메시지를 경청하며, 명확하게 질문하고,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여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자신과 타인, 상황을 신뢰하며 수용할 줄 아는 의사소통 수준의 일치를 강조하는 Satir의 관점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즉 그녀가 주장하는 의사소통 유형들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때문에 모든 가족 관계 내에서 보다 분명한 의사소통의 자세와 일치형의 의사소통의 과정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창 1:26-27) 하나님과 더불어 의사소통을 하였고, 아담과 하와 사이의 완벽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으며, 인간의 의사소통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반영으로 의사소통의 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잘 인식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 타인, 자연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sup>35)</sup>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롬 3:23, 롬 5:12)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창 3:8), 이 단절은 인간의 육체적, 물질적 삶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의사소통의 단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극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회복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경험된다고 말한다.<sup>36)</sup>

이처럼 Satir의 의사소통의 형태에 대한 개념이 많은 실제적, 교육적 함의를 시사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한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즉 인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단순히 낮은 자존감만의 문제가 아니고 죄에 의한 것이며,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복원할 때 가족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의 가족, 사회, 자신과도 화목할 수 있는 것인데, Satir의 개념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닌다.<sup>37)</sup>

둘째, 가족규칙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Satir의 가족규칙은 가족구조 내에서 필수적이며, 역동적이고 영향력이 강한 행동규범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족 규칙, 즉 가족체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규칙이 인간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것이라면 자이존중감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녀의 관점은 가족규칙이나 행동규범의 부재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현대 가정에게 교육적인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 그러나 감정에만 편중되어 있는 가족규칙과 단지 가족구성원의 자이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는 한계를 지닌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가족규칙은 인간의 정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가치로 기만할 때 가족관계가 보다 안정되고 가족구성원들이 전인적인 측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을 때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문제성을 피할 수 없다 보겠다.

#### 4. 치료적 목표, 기법, 치료자의 역할에 대한 분석

Satir의 의사소통 가족치료의 치료적 개입에서 살펴본 치료적 목표와 치료 기법, 치료자의 역할에 대하여 기독교적 관점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 1) 치료적 목표

Satir의 모델이 성장모델이라는 의미는 치료의 목표의 규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그녀는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장이라는 동적인 목적을 상징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간의 융화력(family unity)의 극대화를 치료목표로 두고 있다. 가족구성원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함으로써 한 개인 가족구성원의 자존감이 상승되며, 잠재력이 극대화되고, 가족구성원이 전체적으로 일치된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것이 Satir 모델의 치료적 목표이다. 이에 대해 기독교 상담학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첫째, 융화력의 극대화를 통한 일치형 의사소통의 회복은 성경적으로 평가할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왜냐하면 성경도 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상호관련성을 중요시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개인적인 경건과 함께 서로 세우고 격려하는 방법으로 교회생활을 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갈 5:13, 6:2, 엡 4:2, 32, 골 3:13, 살전 4:18),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를 지체의 각 부분으로 설명함으로써(고전 12:27, 엡 5:23) 서로의 역동적 상호관련성을 통한 신앙성장의 모습을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개인적 차원의 문제해결보다는 가족구성원 전체의 융화력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Satir의 치료목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sup>38)</sup>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에 목표를 둔 그녀의 치료적 목표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성경적 입장에서 상호작용의 중심적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항구적

존재를 인식하는 시작하는데 Satir이론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구심주체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를 신앙성장의 절대불변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롬 8:29, 빌 2:5, 히 12:2), 교회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의 구심체라는 의미에서도(엡 4:15-16) 강조되어 있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몸의 머리로 비유된 상호작용의 구심점이며 그를 통해서만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적 가족치료의 목표로 Satir의 주장대로 상호작용의 극대화로 규정될 경우, 그 상호작용의 중심 및 생명력 근원으로서 예수그리스도를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견해인 것이다.<sup>39)</sup>

둘째,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Satir의 치료모델은 성장모델로 안정이 아니라 성장을 추구한다.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숙’으로 기독교의 상담목표와도 유사하다.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며, 영적성숙을 도모하는 것으로<sup>40)</sup>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계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심리치료와 상담의 본질은 모두 인간의 성장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독교 상담은 신앙을 통한 성장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개념은 일반 심리치료와는 확연히 다르다.<sup>41)</sup> 일반 심리치료 이론인 Satir의 성장의 개념은 그 근본에 있어서 기독교의 성장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즉, 기독교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적, 정서적,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전인격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Satir는 인간의 영적인 측면의 성장을 배제하는 한계를 지닌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볼 때 가정은 요약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맹용길은 오늘의 삶의 성격을 규정하여 이상적 가정을 추구하는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sup>42)</sup>

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여야 한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계획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뜻을 이해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②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사랑에 응답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나타났지만, 성경에 보면 더 넓게 사용하는 가정의 개념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나타났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신실할 것을 원하신다. 가정은 하나님 교육의 중심 모체로서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적용하여 삶을 통하여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이 가정을 지배하여야 하고 가정은 결속을 통하여 그의 사랑과 거룩하심이 가정을 지배하여야 하고 가정은 결속을 통하여 그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④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 사실 가정은 결속을 통하여 연합을 이루고 있으나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복종할 때에 살 수 있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확인했던 사실이다.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결속하여 공동적 삶의 장이 되어야 하며 전 민족을 구원하는 기초 공동체 또는 단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 V. 닫는 글

위와 같이 본 연구자는 V. Satir의 이론과 기독교적 관점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제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가족관계를 요약하면서 본 연구의 귀결을 가지려고 한다.

가족관계에 대한 성경적 적용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 그러나 이 머리됨을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적으로 내어 주는 머리됨이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사심 없이 자신을 희생하여 아내에게 헌신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자기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남편은 자기 아내의 필요를 채우며 아낌으로서 자기 아내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만 한다(엡 5:22-33; 골 3:18-19; 딤후전 3:11-12; 고전 11:3, 14:34-35; 뱀전 3:7).<sup>43)</sup>

결국 인간은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그 관계의 회복은 결코 인간 스스로 회복하거나 인간의 의지로만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주해야만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극명히 밝히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김남식. 「기독교 커뮤니케이션학」. 서울: 베다니, 1999.  
맹용길. 「가정과 윤리」. 서울: 쿰란출판사, 1995.  
박운선. 「성경주석 바울서신」. 서울: 영음사, 1954.  
정문자.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2003.  
정정숙. 「기독교상담학」. 서울: 베다니, 1994.  
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베다니, 1994.

- 홍인중. “가족치료적 접근과 목회상담”, 장신목회상담학회 위임 「일반상담과 목회상담」.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 Adams, Jay E.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정정숙 역. 「상담학 개론」. 서울: 베다니, 1992.
- Carlson, David E. *Counseling and Self-Esteem*. 이관직 역. 「자존감」. 서울: 두란노, 995.
- Collins, Grey R. *Christian Counseling*. 피현의, 이해련 역. 「크리스찬 카운슬링」. 서울: 두란노, 1984.
- F. Philip Rice.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 and Culture*. 정영숙 · 신민섭 · 설인자 편역. 「청소년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3.
- H. Norman Wright. *Crisis Counseling: Helping People in Crisis and Stress*. 전요섭 · 황동현 공역. 「위기상담학」. 서울: 쿤란, 1998.
- Jones, Stanton L. & Butman, Richard E. *Current Psychotherapies*. 이관직 역. 「현대 심리치료」. 서울: 홍신대학교출판사, 1995.
- Kodeski, Ronard L. *Psychology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한기태 역. 「심리학의 기독교적 이해」. 서울: 소망사, 1982.
- Nichols, Michael P. Schwartz, Richard C.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Concepts and Methods*. 김영애 · 정문자 · 송성자 · 제석보 · 심혜숙 · 김정택 · 김계현 공역. 「가족치료 개념과 방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2.
- Paul Trip. *Age of Opportunity: A Biblical Guide to Parenting Teens*. 황규명 역.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 서울: 디모데, 2004.
- Satir, Virginia · J. Banmen · J. Gerber · M. Gomori. 한국버지니아 사티어 연구회역. 「사티어 모델」. 서울: 김영애 가족치료연구소, 2004.
- Satir, Virginia.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 Behavior ook, Inc., 1967.
- 김상복. “지역교회에서의 가족목회상담.” 박사학위논문: 홍신대학교 대학원

2004.

김주식. “목회적 차원에서 가족치료의 기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1996.

남궁미숙. “V. Satir의 의사소통 가족치료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2005.

이순자. “가족상담을 위한 J. Haley와 V. Satir의 가족 의사소통이론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대학원, 1998.

이현숙. “부부역할 수행을 위한 교회의 부부교육프로그램 연구.” 서울: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1990.

주금용. “목회상담을 통한 가족관계 치유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5.

함승애. “V. Satir의 의사소통 가족치료에 대한 성경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2001.

진요섭. “변화의 주체로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이해.”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3권(2004): 28.

---

## 후주

1) Gary R.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피현의, 이해런 역, 「크리스찬 카운슬링」(서울: 두란노, 1984), 26-7.

2) 주금용, “목회상담을 통한 가족관계 치유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5), 19.

3) 이현숙, “부부역할 수행을 위한 교회의 부부교육프로그램 연구” (서울: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1990), 63.

4) 남궁미숙, “V. Satir의 의사소통 가족치료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2005), 16.

5) Michael P. Nichols-Richard C. Schwartz, 김영애·정문자·송성자·제석보·심혜숙·김정택·김

계현 공역, 「가족치료 개념과 방법」(서울: 시그마프레스, 2002), 211.

- 6) 정문자,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서울: 학지사, 2003), 13
- 7) V. Satir, J. Banmen, J. Gerber, M. Gomori, 한국버지니아 사티어 연구회역, 「사티어 모델」(서울: 김영애 가족치료연구소, 2004), 25-7.
- 8) Satir, Banmen, Gerber, Gomori, 23-5.
- 9) Satir, Banmen, Gerber, Gomori, 27-9.
- 10) Satir, Banmen, Gerber, Gomori, 29-30.
- 11) V. Satir,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 Behavior Book, Inc., 1967), 96-7.
- 12) Satir, Banmen, Gerber, Gomori, 33-5.
- 13) 정정숙, 「기독교상담학」(서울: 베다니, 1994), 229.
- 14) 정정숙, 73.
- 15) Antony A. Hookma, 정정숙 역, 「성경이 가르치는 자아형상」(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7), 23.
- 16) 이순자, “가족상담을 위한 J. Haley와 V. Satir의 가족 의사소통이론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대학원, 1998), 47.
- 17) Ronard L. Kodeski, 한기태 역, 「심리학의 기독교적 이해」(서울: 소망사, 1982), 23.
- 18) Paul Trip, *Age of Opportunity: A Biblical Guide to Parenting Teens*, 황규명 역,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서울: 디모데, 2004), 165.
- 19) 정정숙, 「성경적 가정사역」(서울: 베다니, 1994), 94.
- 20) Jay E. Adams,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정정숙 역, 「상담학 개론」(서울: 베다니, 1992), 278.
- 21) 정정숙, 「기독교상담학」, 74.
- 22) 함승애, “V. Satir의 의사소통 가족치료에 대한 성경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2001), 56.
- 23) 함승애, 56.
- 24) 박윤선, 「성경주석바울서신」(서울: 영음사, 1954), 521.
- 25) 김주식, “목회적 차원에서 가족치료의 기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1996), 53.
- 26) 이순자, 49.
- 27) H. Norman Wright, *Crisis Counseling: Helping People in Crisis and Stress*, 전요섭 · 황동현 공역, 「위기상담학」(서울: 쿤란, 1998), 264.
- 28) F. Philip Rice,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 and Culture*, 정영숙 · 신민섭 · 설인자 역, 「청소년심리학」(서울: 시그마프레스, 2003), 131.
- 29) 이순자, 52.

- 30) David E. Carlson, *Counseling and Self-Esteem*, 이관직 역, 「자존감」(서울: 두란노, 1995), 22.
- 31) Adams, 240.
- 32) 홍인중, “가족치료적 접근과 목회상담”, 장신목회상담학회 위임 「일반상담과 목회상담」(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180.
- 33) Stanton L. Jones & Richard E. Butman, *Current Psychotherapies*, 이관직 역, 「현대 심리치료」(서울: 총신대학교 출판사, 1995), 480-1.
- 34) 홍인중, 181.
- 35) 김남식, 「기독교커뮤니케이션학」(서울: 베다니, 1999), 55-6.
- 36) 김남식, 57-63.
- 37) 이순자, 53.
- 38) 함승애, 73.
- 39) 함승애, 73.
- 40) 정정숙, 「기독교상담학」, 53.
- 41) 전요섭, “변화의 주체로서 성령의 시역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이해”,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3권(2004), 28.
- 42) 맹용길, 「가정과 윤리」(서울: 쿤란, 1995), 144-145.
- 43) 김상복, “지역교회에서의 가족목회상담”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대학원, 2004), 28.

Abstract

## A Study on the Virginia Satir's Family Belief, Value System and Family Therapeutic Theory in Christianly Analysis

Young-in Byun

(Ph.D., Dongseo University)

Gary. R. Collins, the christian counselor explained his theory following by the christian world view. God's words, the Bible is revealed truth. And today's many kinds of study and theory were inducted from the revealed truth. It was named the discovered truth.

Namely, without biblical basic, in any sort of study, learning and truth must have the limitation of themselves. Therefore this study was light up analysis of Christian Counseling based on the word of God.

We must know that the theory of V. Satir gave great influence today's family therapy and its useful utilization to us. And partially her theory has the meeting points with Bible. Another hand, it has argument points against Bible, too. So, V. Satir's theory was maximized to the capacity of person excessively.

Finally we should recognize that person couldn't keep V. Satir's theory without will of God's words. This article analyzed into the Bible with V. Satir's family belief, family value system, therapeutic theory and communication type.

Key words : Christianly Analysis, Family Belief, Value System, Therapeutic theory, Communication theory

K C I